

기본급 99,000원 인상! 산업전환협약 쟁취!
노동자생존권 보장!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쟁취!



지부교섭 속보 03호

2021.05.17.(월)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4차 지부교섭_질의응답 ① - 산업전환협약]

산업전환 시기 노사공동결정제 절실!



4차 교섭은 질의응답 진행

5월 13일(목) 대한이연에서 열린 4차 지부교섭은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측 교섭 위원들은 지부 요구안 중 산업전환협약에 관해서 질의했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 주 교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6 예정됐던 3차 지부교섭은 사측의 사정으로 교섭은 개최하지 않고 교섭차수만 인정함)

노사공동결정이 사회적 비용 줄인다

올해 지부 요구안 중 산업전환협약은 '노사공동결정'이 핵심이다. 산업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산업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고용, 노동조건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사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노조의 반발과 투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섭, 입법 모든 방법 추진

산업전환은 개별기업, 개별지회 수준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교섭, 국회를 통한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용자들도 함께 한다면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산업전환은 노사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공동 결정제도가 더 절실하다. 격변의 시기에는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

* 차기 교섭 5/20(목) 14시30분 한국CC

4차 교섭 속기록

땀흘려 노동해서 희망찾을 수 있어야

노 : 땀흘리고 노동해서 희망을 찾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대학생도 투기, 투자로 눈을 돌린다.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땀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산업전환협약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 질의응답은 노사가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이면 좋겠다.

사 : 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근로개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목표가 맞춰져 있고 경영자는 일정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근로자도 대우 받아야 하고 경영자도 이익을 봐야하니 같이 가야하는 공동체다. 최근 뉴스보면 내연기관 업체는 절망적이다. 대기업은 자금, 인적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상대 마음을 헤아리면서 따뜻하고 진지하게 교섭을 통해서 올해도 원만히 되길 바란다.

산업전환과 산업재편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는데 조합이 볼 때 불안정한 일자리 기준이 뭔가?

노 :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산업재편 되면서 내연기관 일자리는 줄고, 친환경차로 가면서 서비스 관련 인원은 늘어난다고 한다. 인력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인력이 이동되는 부분에 비정규직을 쓰려고 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이런 식으로 산업재편하지 말자는 것이다.

사 : 교육훈련에서 신기술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

노 : 새로운 설비, 생산품 변경으로 공정시스템 변화되거나 사무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말한다.

사 : 기업이 생존조차 위협받고 투자여력이 없는 회사에서 조합이 어느 정도 조력이 가능한가?

노 : 노사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크게 보면 한축으로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각 지역

지부는 지방정부와 노정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 속에서 노사가 같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신사업으로 전환하려는데 여력이 없는 부분, 신기술로 바뀌면서 생기는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는 노조 혼자 할 수 없다. 사용자가 함께 하면 빨리질 수 있다.

사 : 중앙, 지부교섭 참여 업체가 다르고 기업규모도 다르다. 작은 기업까지 전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노 : 중앙, 지부교섭 안들어오는 사업장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는 어려운 것 안다. 일단 테이블에 같이 앉는게 중요하다. 다각도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입법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사 : 회사마다 근로조건 변경, 고용문제 등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 노사공동결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단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 : 기존에 합의한 노사공동위나 각 단위 고용안정위 같은 기구 활용할 수 있다.

사 : 조합의 범위가 지부, 중앙까지 포함하면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회사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노 : 중앙과 협약이 맺어지면 중앙이 주체가 되어야할 것도 있고, 지회가 주체가 되는 것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환 준비에 노동이 배제되고 있다. 산업재편으로 여유인력이 예상되면 어떻게 할지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 구조조정을 피하고 전체 고용을 유지할 방법을 중앙, 지부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 :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다.

노 : 한 사업장만 보고 요구할 수 없다.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세부적인 건 사업장 노사가 풀 수밖에 없다.